

문학을 생태적으로 사유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

- 「채식주의자」에 나타난 말과 꿈의 네트워크 -

김 명 훈**

차 례

- | | |
|---------------------------------------|----------------------------------|
| 1. 서론: 문학으로 생태 위기에 대응하기? | 3. 정체와 <i>이탈릭체</i> : 타이포그래피의 물질성 |
| 2. (가짜) 대립항들: 이질적인 것들을 이접하는 소설의 내적 질서 | 4. 결론: 물질과 인간, 꿈과 말의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

국문초록

생태 위기로 인한 전 지구적 파국이 예견되는 시점에서, 문화와 문화의 일종인 문학 역시 물질적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영역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강의 단편소설 「채식주의자」를 읽어나가는 과정을 통해 문학을 생태적으로 사유하기 위한 방법에 관해 고찰해 보았다. 작가 스스로도 털어놓았듯이, 「채식주의자」는 오해의 소지가 많은 작품이다. 독자들은 작품의 주요 인물인 '영혜'가 왜 채식주의자가 되

* 이 논문은 2024년 한국문학회 하반기 전국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토론과 심사 덕분에 글의 방향이 보다 명확해질 수 있었다. 토론을 맡아주신 권영빈 선생님과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린다.

** 한국교원대학교 조교수

었는지, 왜 자신의 신념을 지킨다는 핑계로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불평했다. 본고는 「채식주의자」에 대한 독자 및 연구자들의 상반된 감상과 해석, 불평들이 인물에 대한 이항대립적 판단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가정하에, 그러한 이항대립적 판단의 원천으로 작용하는 구조주의 기호학의 분석 도구를 활용해 「채식주의자」를 읽어나갔다.

이 과정에서 「채식주의자」가 구조주의 기호학에서 활용되는 이항대립적 의미 생산 체계 및 서사 프로그램을 매우 전면적으로 배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서사의 표면에 드러나는 주요 인물들 간의 갈등은 주체의 양태 변화와 거의 무관하다는 점에서 서사 분석 및 해석의 최종심급이 될 수 없었으며, 그 대신 비-인간 행위자들이 주체의 양태 변화, 즉 육식에서 비-육식으로의 이행을 유발함을 알게 되었다. 비-인간 행위자와 네트워킹된 ‘영혜’는 인간화된 세계로부터 이접됨으로써 감수자라는 독특한 위상을 드러낸다.

비-인간/물질적인 것에 감응하는 ‘영혜’의 감수자로서의 위상이 「채식주의자」에 대한 오독의 주요 원인이므로, 본고에서는 비-인간/물질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어 「채식주의자」의 읽기 과정을 재검토해 보았다. 이를 통해 ‘영혜’의 발화 단락이 대부분 꿈이나 단속적인 이미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이 단락들이 이탤릭체로 표기되어 있다는 점에 새삼 주목하게 되었다. 이탤릭체로 표기된 ‘영혜’의 발화는 비-인간 행위자와 연결된 감수자의 윤택된 심적 반응이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동시에 정체와 이탤릭체라는 시각적 물성의 대조를 통해 독자들의 이항대립적 질서에 대한 믿음과 안정감을 붕괴시킨다. 요컨대 「채식주의자」는 우리의 일반화된 서사 읽기 패턴과 문학적 경험을 그 토대로부터 뒤흔드는, 강력한 정동 장치라 할 수 있겠다.

주제어: 한강, 채식주의자, 생태주의, 서사기호학, 행위자네트워크 이론, 감수자, 타이포그래피, 이탤릭체

1. 서론: 문학으로 생태 위기에 대응하기?

‘문학은 생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상식적인 답변은 ‘아니다’이다. 생태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해를 유발하는 거대기업, 선진 공업국가, 반 생태적 사회 시스템, 자본주의 세계 체제 등이 대응의 주체 혹은 해결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물론 문학도 사회 혹은 세계를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이므로, 나름의 책임과 역할이 있을 것이다. 가령 생태 위기를 경고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캠페인에 문학이 동원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문학 현상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동원의 효용에 얼마나 공감할지 자문해 본다면 그리 낙관적인 답을 얻기는 어려워 보인다. 문학의 사회적 영향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점도 그 이유 중 하나겠지만, 그보다는 최근의 생태 위기가 인간에 의해 가속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통제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서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동원되어야 할 (근대)문학이라는 체도가 인간·이성 중심의 존재론·인식론에 그 실천의 토대를 두고 있다는 점이 더 근본적인 이유라고 판단된다. 요컨대 문학을 통해 생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학의 존재론적·인식론적 토대가 재구성되어야 하는 셈이다. 본고에서는 이 문제를 사유하기 위해 현재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인 한강의 『채식주의자』 연작 중 1부에 해당하는 「채식주의자」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려 한다.¹⁾

작가의 말마따나 「채식주의자」는 “아주 오해의 여지가 많은 작품”이다.²⁾ 작가는 「채식주의자」를 읽은 독자들로부터 “왜 이렇게 불편한 소

1) ‘채식주의자’는 「채식주의자」, 「몽고반점」, 「나무불꽃」 등 창비에서 출간된 한강의 연작소설집의 제목이면서 2004년 『창작과비평』 여름호에 발표한 단편 「채식주의자」(채식주의자 연작의 1부)를 지칭하기도 한다. 본고는 문학을 생태적으로 사유하기 위한 시론적 연구이므로, 논의의 범위를 연작 1부인 「채식주의자」로 한정하며, 『창작과비평』 2004년 여름호에 실린 판본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2) 한강·강수미·신형철, 「대담: 한강 소설의 미학적 층위- 『채식주의자』에서 『흰』

설을 쓴 것이냐”, “이 여자가 피해자인 것 같지만 사실 주변 사람들을 심하게 괴롭혔다고, 특히 남편을.”, “여성이 너무 수동적으로 그러지 않았는가”, “너무 모호하지 않느냐”와 같은 항의를 받았다고 고백한 바 있다.³⁾ 이러한 독자들의 불만은 「채식주의자」의 서사가 여성과 남성, 식물과 동물, 채식과 육식, 자연과 문명 등의 이항대립에 의존하는 것처럼 보임에도 궁극적으로는 어느 한 가지 입장에 전적으로 동조할 수 없도록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독자들의 불만 섞인 항의에도 불구하고, 「채식주의자」는 선량한 채식주의자 ‘영혜’가 야만적인 육식주의자 가족들의 폭력에 저항하여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자 분투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독자라면, 「채식주의자」를 ‘그런’ 식으로 읽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그런’ 식이 아니라면, 이 소설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 물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지금까지 축적된 「채식주의자」에 관한 연구사를 정리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찾아질 것이고, 본고에서도 연구를 검토할 예정이긴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의 모두에서 ‘그런’ 식의 읽기를 굳이 언급한 이유는, 「채식주의자」를 충분히 향유하는 데에 ‘그런’ 식의 읽기도, 물론 조금 수정된 방식이어야 하겠으나,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한 ‘그런’ 식의 읽기란 주체의 행위 연속체를 대상과의 관계를 통해 파악하는 구조주의 기호학의 서사-기호, 담화 분석에 기반한 해석을 뜻한다.⁴⁾ 그레마스의 서사기호학에 따라 「채식주의자」의 서사-기호, 담화를 분석하면, 주체인 ‘영혜’가 대상인 식물과 이접된 상태에서 연접된 상태로 전환되는 과정이 「채식주의자」의 기본 구조가 된다(물론 이런 식의 해석은, 텍스트 혹은 저자가 의도한, 유도된 오독이며, 따라서

까지, 『문학동네』 88, 2016년 가을, 35쪽.

3) 위의 글, 36쪽.

4) 알기르다스 줄리앙 그레마스, 김성도 역, 『의미에 관하여』, 인간사랑, 1997, 374-386쪽 참조.

수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2장에서 밝힐 예정이다). 이러한 서사 프로그램 (행위 연속체)이 가동되기 위해서는 의미를 생산하기 위한 기호의 구조적 체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 체계란 구조주의 언어학에서부터 연원하는 것으로, 하나의 항(기호)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그것이 다른 항(기호)들과 일정한 관계(구조적 체계)를 이루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레마스의 '기호학적 사각형'은 기호가 의미를 생산하는 방식을 반대, 부정(모순), 함의 등 네 가지 항(의소, sème)들과의 '관계'로 시각화하였는데,⁵⁾ 이처럼 차이를 기반으로 하는 의미 생산 방식은 서사를 분석하는 데에도 널리 적용되어 왔다.

주지하듯 구조주의의 지식/의미 생산(서사 담화 분석을 포함하여) 방식에는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이제는 상식적인 내용이 되었지만, 구조주의가 의미를 변별하기 위해 도입하는 구조적 체계란 이항대립에 의존하며, 그러한 이항대립이 때로는 매우 자의적이라는 사실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두 항의 관계를 '반대'로 설정하는 방식은 해체론을 비롯한 포스트-구조주의 담론들에 의해 집중적으로 비판되었는데,⁶⁾ 이러한 구조주의적 인식틀의 한계는 「채식주의자」와 「채식주의자」, 연구사를 검토하는 데에도 중요한 참조점이 된다. 앞서 '그런' 식의 읽기에서 확인한 것처럼 「채식주의자」의 서사는 식물과 동물, 채식과 육식, 여성과 남성, 자연과 문명 등 '반대' 관계로 설정된 항들의 체계로 이해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채식주의자」를 비롯한 '채식주의자' 연작에 대한 연구에서도 확인되는 바, '채식주의자' 연작에 대한 초기 연구는 대체로 페미니즘이나 생태주의, 혹은 양자를 결합한 에코페미니즘 등을 이론적 배경으로 삼아 진행되었다.⁷⁾ 이들 연구에서 「채식주의자」의 서사는 '영혜'와 가족

5) 위의 책, 179-205쪽.

6) 폴 프라이, 정영목 역, 『문학 이론』, 문학동네, 2019, 227-250쪽.

7) 김재경, 「소설에 나타난 음식과 권력의 문화기호학: 김이태 「식성」과 한강 『채식주의자』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22, 한국여성문학학회, 2009; 이찬규·이은지, 「한강 작품 속에 나타난 페미니즘 연구: 『채식주의자』를 중심으로」, 『인문과

(‘영혜’ 외의 모든 인물)들의 반대 관계를 전제로 하여 분석된다.⁸⁾

『채식주의자』에서 인물들의 행위와 지향은 선명한 대립 구도로 제시되고 있기에 기호-서사 층위에서의 기본 구조를 이항대립으로 전제하고 분석하는 방식은 타당성을 갖는다. 아울러 소설 속 인물들의 행위와 지향에서 도출되는 이항대립의 기본 구조가 ‘영혜’를 속박하는 폭력적·가부장적·인간중심적 지배 이데올로기의 동일자적 욕망에 의해 구성되었음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도 앞서 언급한 연구들의 성과라 하겠다. 그런데 이처럼 지배 이데올로기의 폭력성과 허구성을 기호-서사 층위에서 분석하여 비판하는 작업은 한강 소설을 향유할 때 발생하는 특유의 정동적 효과를 충실히 검토하기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또한 이항대립을 비판하기 위한 연구가 그러한 이항대립의 담론·언어를 전제로 삼아 전개될 경우 결과적으로 자신이 비판하고자 하는 대상의 담론·언어를 스스로 정당화하게 된다는 모순도 고려되어야 한다.⁹⁾ 요컨대, 이항대립의 폭력으로부터 탈주하려는 ‘영

학』 46,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0; 우찬재, 「섭생의 정치경제와 생태 윤리」, 『문학과 환경』 9-1, 문학과 환경학회, 2010; 신수정, 「한강 소설에 나타나는 ‘채식’의 의미: 『채식주의자』를 중심으로」, 『문학과 환경』 9-2, 문학과 환경학회, 2010.

8) 페미니즘, 생태주의적인 관점의 연구와 함께 정신분석학적 관점 역시 『채식주의자』 연구사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정신분석학적 관점의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대체로 ‘영혜’의 신체 감각이나 자의식, 트라우마 등이다. 폭력에 대한 영혜의 의식과 무의식의 언어적 표현을 주로 분석한다는 점에서 이 연구들 역시 텍스트의 기호 작용에 집중하고 있다 하겠다. 관련 연구로는 한귀은, 「외상의 (탈)역전이 서사-한강의 『채식주의자』 연작에 관하여」, 『배달말』 43, 배달말학회, 2008; 우미영, 「주체화의 역설과 우울증적 주체」, 『여성문학연구』 30, 한국여성문학학회, 2013; 심진경, 「변신하는 주체와 심리적 현실로서의 환상」, 『세계문학비교연구』 65, 세계문학비교학회, 2018; 장수익, 「감각과 분열증-한강 소설 연구 1」, 『한국현대문학연구』 58, 한국현대문학학회, 2019.

9) 이러한 지적은 최근 연구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된다. 박진, 「한강 연작소설 『채식주의자』에 나타난 글쓰기의 자의식과 독서의 알레고리」, 『현대문학이론연구』 19, 현대문학이론학회, 2019, 107-108쪽; 송유진, 『정동적 읽기를 통한 한강 소설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3, 7쪽.

혜'의 처절한 시도가 좌절되는 지점에서, 논의의 구도는 기호-서사 층위의 텍스트 분석에 달라붙는 자의성을 반성하는 동시에 기호-서사 층위로 설명되지 않는 한강 소설의 표면 효과에 접근하기 위한 방법론 탐색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최근의 한강 소설에 대한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텍스트의 표면 효과이다. 특히 '채식주의자' 연작 연구에는 독서의 알레고리, 정동, 페이션시, 포스트휴먼 등 매우 다채로운 관점과 이론들이 동원되고 있는데, 이들 연구는 대체로 기호-서사 층위의 텍스트 분석을 넘어 독자가 '영혜' 및 텍스트의 특이한 정동에 감응되는 방식까지 분석의 범주를 확대하려는 경향을 보인다.¹⁰⁾ 본고는 최근 한강 소설 연구의 문제의식을 이어받되, 그러한 연구들이 비판적으로 검토했던 기호-서사 층위의 이항대립을 해석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 생태 위기에 대한 문학의 대응은 독서를 매개로 진행될 수밖에 없고, 소설이라는 서사 양식의 본질을 고려할 때 기호-서사 층위의 이항대립은 독서를 위한 최소한의 기능을 갖기 때문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최근 연구 경향과 마찬가지로 한강의 소설을 읽는 과정을 분석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결론을 앞질러 말하자면, 한강의 소설은 독자에게 익숙한 서사 프로그램을 가동시키면서도 마치 그러한 언어·담론이 단절되는 순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 순간은 우리가 자명하다 여겼던 이항대립이 무력화되는 시간이며, 기호-서사 층위가 아니라 텍스트 표면과 독자의 신체가 거리를 두고 맞닿는 지점이라 하겠다. 그 단절의 순간, 독자는 텍스트의 표면

10) 오정관, 「한강 『채식주의자』의 언어기호론적 해석」, 『인문언어』 18, 국제언어인문학회, 2016; 박수진, 「한강의 『채식주의자』에 나타난 포스트휴먼적 변신」, 『비교한국학』 27-1, 국제비교한국학회, 2019; 박진, 「한강 연작소설 『채식주의자』에 나타난 글쓰기의 자의식과 독서의 알레고리」, 『현대문학이론연구』 19, 현대문학이론학회, 2019; 이소연, 「한강 소설 속의 몸 이미지와 정동(affect)의 서사담론」, 『한국문예비평연구』 75,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22; 송유진, 「정동적 읽기를 통한 한강 소설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3; 한효빈, 『한강 소설에 나타난 여성 인물의 페이션시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3.

에 의해 정동되고 또 다른 존재들을 정동할 수 있는 신체로 변화된다.¹¹⁾ 이 상태가 문학을 생태적으로 사유하기 위한 조건이 된다는 점을 「채식주의자」를 통해 확인해보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2. (가짜) 대립항들: 이질적인 것들을 이접하는 소설의 내적 질서

2장에서는 「채식주의자」의 기호-서사를 행위소(actant) 중심으로 간략히 정리한 뒤, 「채식주의자」와 ‘채식주의자’ 연작의 핵심 인물인 ‘영혜’의 기호 양태가 다른 존재들과 어떻게 관련되며, 그러한 관계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살펴본다. 이를 위해 먼저 「채식주의자」의 서사를 사건 시간의 순서에 따라 최대한 간단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영혜’는 어린 시절 집에서 키우던 개에게 물렸던 적이 있다. 아버지는 그 개를 잔인하게 죽인 뒤 마을 사람들과 그 고기를 나누어 먹는다. ‘영혜’ 역시 개고기를 먹는다.

② ‘영혜’는 평범한 직장인인 ‘나’와 결혼해 평범한 여성이자 아내로 살아간다. ‘나’ 역시 ‘영혜’가 지극히 평범하고 아내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다는 점에 만족하였으나 ‘영혜’가 평소 브래지어 착용을 꺼려한다는 점은 특이하다고 생각한다.

11) 문학 연구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정동’ 개념은 스피노자의 ‘정념론’을 생성과 운동의 차원으로 재정립한 들뢰즈에 의해 정초되었고, 최근에는 브라이언 마수미 등에 의해 존재론적이고 윤리적인, 신체적 역량의 감산적·유동적 흐름을 포착하기 위한 어휘로 활용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채식주의자」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독자들의 해석적·윤리적 판단의 유보, 지체, 망설임 등을 텍스트의 정동적 효과로 보고 분석을 수행한다. ‘정동’ 개념에 대해서는 멜리사 그레그·그레고리 시그워스 편, 최성희·김지영·박혜정 역, 『정동 이론』, 갈무리, 2015, 14-54쪽; 브라이언 마수미, 조성훈 역, 『정동정치』, 갈무리, 2018, 6-15쪽; 나병철, 『정동정치와 언택트 문학』, 문예출판사, 2023, 25-34쪽 참조.

③-1'영혜'가 요리를 하다 식칼의 파편이 음식에 들어가고 이에 '나'가 화를 낸 날 밤,

③-2'영혜'는 헛간 같은 건물에 시뻘건 고깃덩어리들이 걸려 있는 꿈을 꾸다.

④그날 새벽 '영혜'는 꿈에서 깨 냉장고 문을 열고 그 안을 응시한다. 잠에서 깬 '나'가 그 모습을 목격한다. '영혜'와 '나'가 다시 침대로 돌아온다.

⑤늦잠을 잔 '나'는 '영혜'가 냉장고에서 고기를 꺼내 쓰레기봉투에 넣는 장면을 목격한다. '나'는 '영혜'에게 화를 내고 출근한다.

⑥그날 저녁 '영혜'는 '나'에게 고기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식탁을 차려 준다. 그날 이후 '영혜'는 고기를 먹지 않았고 '나'와의 섹스도 거부한다.

⑦'나'는 '영혜'와 함께 부부 동반 회사모임에 참석하였는데, '나'는 그 자리에서 '영혜'가 브래지어를 하지 않고 고기가 들어간 음식을 먹지 않아 당혹스러워한다.

⑧'나'는 '장모'와 '처형'에게 '영혜'가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린다.

⑨'영혜'가 누군가를 살해하고, 누군가에게 살해당하는 꿈을 꾸다.

⑩가족모임을 사흘 앞둔 저녁 '나'는 '영혜'가 상의를 입지 않은 채 감자껍질을 벗기는 장면을 목격한다.

⑪'영혜'는 불길한 꿈을 꾸고 잠을 자지 못한다.

⑫가족모임에서 가족들이 '영혜'에게 고기를 억지로 먹이려 하고 그 과정에서 '장인'이 '영혜'의 뺨을 때린다. '영혜'가 자해하고, '동서'가 '영혜'를 업고 병원으로 옮긴다.

⑬'장모'는 병원에 입원한 '영혜'에게 흑염소를 한약이라 속여 먹이려 하지만 '영혜'는 그것을 토해내고 나머지는 버린다.

⑭'영혜'는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 답답함을 느낀다.

⑮'영혜'의 병실을 지키던 '나'는 누군가를 살해하는 꿈을 꾸다.

⑯다음 날 아침 '영혜'가 사라진 것을 확인한 '나'는 병원 뜰에서 상의를 벗은 채 오른 손에 동박새를 쥐 '영혜'를 목격한다.

위의 서사를 서술시간 순으로 재배열하면 다음과 같다.

② → ④ → ⑤ → ③-2 → ⑥ → ③-1 → ⑦ → ⑧ → ⑨ → ⑩ →

⑪ → ⑫ → ① → ⑬ → ⑭ → ⑮ → ⑯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사건·서술시간의 순서를 정리하는 이유는 텍스트 분석을 위해 해당 단락들을 조회할 때 최대한 간략하게 표기하기 위해서이다. 이탤릭체로 표시한 곳은 텍스트에서도 이탤릭체로 표기된 단락들로, 『채식주의자』의 지배적인 서술자 ‘나(남편)’가 아니라 ‘영혜’의 목소리로 재현되는 부분이다. 기왕 정리한 김에 사건시간과 서술시간의 순서를 간단히 비교해보면, 대체로 서술시간도 사건시간과 유사한 순서로 진행되지만 ③-2, ③-1, ① 등의 서사 단락에서는 시간 순서상의 모순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¹²⁾ ①은 시간 순서의 모순이 가장 두드러지는 대목으로, 여러 연구에서 ‘영혜’가 ‘폭력의 희생자’로만 인식되지 않는다고 보는 근거가 된다.¹³⁾ ①은 서술 순서상으로도 소설 전체에서 가장 폭력적이고 극단적인 사건인 ⑫ 다음에 놓인다. 일단 ③-2, ③-1, ① 등 ‘영혜’의 목소리가 발화되는 단락에서 시간 순서의 모순이 나타난다는 점을 기억해두기로 하자.

『채식주의자』의 서사를 정리해보면 서사-기호 층위에서의 이항대립이 선명하게 개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⑤, ⑦, ⑫는 ‘영혜’와 그 외의 인물들의 대립이 가장 명백하게 드러나는 서사 단락으로, ‘영혜’는 비-육식, 그 외의 인물들(‘나’, ‘나’의 회사 동료 및 가족들, ‘영혜’의 가족)은 잡식이라는 양태로 구분된다. 그 외의 양태(가령 성별이나 연령, 가정 내 역할, 경제적 능력, 사회적 지위 등)는 절대적인 구분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¹⁴⁾ 따라서 ‘영혜’와 ‘영혜’가 아닌 인물들을 구분 짓는 가장

12) 시간 순서의 모순이 실현되는 양상에 대해서는 제라르 즈네트, 권택영 역, 『서사담론』, 교보문고, 1992, 23-74쪽 참조.

13) 우미영, 앞의 논문, 464쪽; 오정란, 앞의 논문, 184-185쪽; 조윤정, 『한강의 『채식주의자』에 나타나는 인간의 섭생과 트라우마』, 『인문과학』 64,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7, 20-21쪽.

14) “하지만 남성과 여성 사이의 절대적 대립은 남성이면서 동시에 여성인 양성구유자 앞에서 허물어지며, 이와 함께 남성이 비여성성을 함축한다는 가정도 성립할

명백한 그리고 유일한 기준은 ‘육식’에 대한 입장이다. ‘육식을 할 수 있다’와 ‘육식을 할 수 없다’의 대립이 그것이다. 그런데 ‘영혜’ 역시 처음부터 비-육식이었던 것은 아니다. 사건시간 순으로 보면 ③ 이후에야 ‘영혜’의 비-육식 양태가 나타난다. 따라서 「채식주의자」의 서사를 ‘영혜’ 중심으로 파악할 때, 이 소설의 서사 구조(서사 프로그램)는 주체인 ‘영혜’가 육식과 연결된 상태(육식을 할 수 있다)에서 이접된 상태(육식을 할 수 없다)로 전환되는 형식이라 할 수 있다. 즉 이접에서 연결으로의 이행이 아니라 연결에서 이접으로의 이행이 이 소설의 기본적인 서사 프로그램이다. 이를 행위기호학 구도에 따라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S \cap O) \rightarrow (S \cup O)$$

(S: 주체(영혜), O: 가치 대상(육식), U: 이접, ∩: 연결, →: 변형 행위)

물론 그래마스의 행위기호학에서 연결에서 이접으로의 변형은 서사 담화의 일반적인 모델이 아니다. 서론에서 ‘그런 식’의 읽기에 대해 언급 하면서 정리한 것처럼, 서사 프로그램의 행로는 주로 이접에서 연결으로

수 없게 된다. / 이처럼 기호학적 사각형은 논리적인 것과 비논리적인 것(경험적이고 주관적인 것)이 섞인 잡종 모델이다. 그러한 사실은 이 모델의 이론적 유효성을 의심스럽게 만드는가? 그렇지는 않다. 그것은 오히려 이원론적 대립을 의미 생성의 출발점으로 삼은 많은 담화들의 자의적인 성격을 드러내는 동시에, 그러한 이원론적 대립의 불안정한 이면을 밝히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많은 이데올로기적인 담화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비논리적인 대립, 즉 S1과 S2의 대립에만 주목하도록 유도한다. 그러나 기호학적 사각형은 그 속에서 간과되기 쉬운 논리적 대립, 즉 S1과 -S1, S2와 -S2 사이의 대립을 상기시키고 이로써 S1이 반드시 -S2와 일치하는 것도, 혹은 S2가 반드시 -S와 일치하는 것도 아님을 보여준다. 기호학적 사각형은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담화의 조작이 가리려 하는 의미론적 영역을 볼 수 있게 해준다. 또한 S1과 S2의 대립 자체가 비논리적이고 가변적인 것이라면, 하나의 담화가 양자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관찰함으로써 그 담화의 이데올로기적 입장을 가늠해보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김태환, 『문학의 질서』, 문학과지성사, 2007, 177-178쪽)

의 이행에 초점이 맞추어지기 때문이다.¹⁵⁾ 주체가 대상을 획득하거나 욕망하는 서사, 이것이 우리가 아는 서사의 일반적인 프로세스이고, 「채식주의자」는 매우 의도적으로, 그리고 공을 들여 이러한 서사 프로세스에 역행한다. 물론 위의 도식에서 O의 자리에 ‘식물’이나 ‘채식’을 놓을 수도 있겠으나, ①, ②를 고려할 때 애초에 ‘영혜’가 채식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므로, O의 자리에 ‘채식’을 놓고 변형(→)을 논할 수가 없다. 다른 인물들을 S의 자리에 놓고 서사를 분석할 수도 있겠으나, 다른 인물들은 적극적인 변형 행위(→)를 생산하지 않기에 S가 되기에는 미흡하다.¹⁶⁾ 또한 ③ 이후 ‘영혜’의 태도를 고려할 때 육식을 ‘가치’ 대상에 놓는 것이 어색하다고 여길 수도 있겠으나, 그렇다고 채식을 가치 대상에 놓을 수도 없다. 앞서 살핀 것처럼 애초에 ‘영혜’가 식물을 먹지 않았던 것도 아닐뿐더러 ③을 고려할 때 ‘영혜’는 채식을 원(욕망)해서 채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채식을 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 소설은 오로지 ‘영혜’만이 S의 자리에 놓일 수 있고, 탐탁지는 않지만 ‘육식’이 O의 자리에 놓이는 것이 서사-기호 분석상 가장 효율적이며, 두 가지 사항을 고려했을 때 연결에서 이접으로의 이행만이 허용되는 셈이다.¹⁷⁾

그렇다면 작가는 왜 기존의 상식에 역행하는 서사 프로세스를 창안해야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사항은 우리

15) 물론 그레마스의 서사 프로그램을 철저히 적용하면 모든 가능한 이행의 유형을 포착할 수 있다. 다만 여기에서는 연결에서 이접으로의 이행이 일반적인 독자들에게는 다소 낯선 형태라는 점을 고려하는 것으로 충분하겠다. 서사 프로그램의 유형에 대해서는 김성도, 『구조에서 감성으로-그레마스의 기호학 및 일반의미론의 연구』, 고려대학교출판부, 2002, 216-226쪽 참조.

16) ‘채식주의자’ 연작 전체를 놓고 보자면, ‘영혜’의 언니 ‘인혜’도 S가 될 수 있다. 다만 본고에서는 단편 「채식주의자」만 다루기에 ‘인혜’에 대한 논의는 생략한다.

17) 물론 O의 자리에 ‘비-육식’을 넣으면 이접에서 연결으로의 이행으로 「채식주의자」의 서사 프로그램을 정의할 수 있다(호환 가능하다). 다만, 부정 항을 사고하는 것은 일반적인 독자들에게는 매우 낯선 경험이므로, 여기에서는 ‘육식’을 가치 대상으로 정의하겠다.

의 S ‘영혜’가 능동적인 행위자(agent)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주체의 변형 행위(→)가 표면화되는 지점, 즉 ③을 확인해보면, ‘영혜’는 양태의 변형을 위해 행위를 수행하는(역량을 펼치는) 능동적 주체가 아니라 ‘꿈’에 의해 습격당하고, 그 결과로 육식을 할 수 없게 되는 수동적인 ‘감수자(patient)’로 나타난다. 마치 ‘몽유병’ 환자처럼, ‘영혜’는 꿈에 의해 육식과 이접 당한다.¹⁸⁾ ‘영혜’는 무언가에 붙들린 사람일 뿐, 자신의 행위 역량을 서사 프로세스에 따라 펼쳐 보이는 영웅이 아니다.¹⁹⁾ 그렇다면 「채식주의자」에 대한 읽기 과정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상정하는 서사 프로세스일 때와는 달라져야 한다. 이 지점에서 그레마스의 행위자(acteur)-행위소(actant) 모델이 인간만을 행위자-행위소로 상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²⁰⁾ 행위자-행위소는 말 그대로 행위의 주체-슬롯일 뿐 인간화될 필요가 없다. 다시 ③ 지점의 앞뒤 맥락을 살펴보자. 꿈을 꾸기 전날 밤 ‘영혜’는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식칼로 고기를 자르는데, 이때 식칼의 파편이 음식에 들어가 ‘나’가 식칼 파편을 씹게 된다. 그로 인해 ‘나’가 ‘영혜’에게 화를 내는데, 해당 장면에서 주목해야 할 대목은 다음과 같은 문장들이다.

알지, 당신이 서두를 때면 나는 정신을 못 차리지. 다른 사람이 된 것

18) 김홍중은 페이스시(patency) 개념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가브리엘 타르드가 사회를 몽유병에 비유한 대목을 다음과 같이 옮겨놓았다. “사회상태란 최면상태와 마찬가지로 꿈의 한 형식에 불과하다. 즉 조종받은 꿈이며 작용 중인 꿈이다(un rêve de commande et un rêve en action). 암시된 관념들을 가진 것에 불과한데도 그것들이 자발적인 것이라고 믿는 것, 이것은 몽유병자뿐 아니라 사회적 주체에게도 있는 고유한 착각이다.”(김홍중, 「가브리엘 타르드와 21세기 사회이론」, 『한국사회학』 56-1, 한국사회학회, 2022, 94쪽에서 재인용)

19) 주지하듯 그레마스의 서사기호학에서 주체의 행위, 즉 ‘하다’의 양태화는 ‘원하다(vouloir)’, ‘알다(savoir)’, ‘할 수 있다(pouvoir)’, ‘해야 한다(devoir)’ 등으로 표현된다(김성도, 앞의 책, 278-280쪽). 아마도 대부분의 독자들은 이 양태들이 ‘영혜’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할 것이다.

20) 위의 책, 206쪽.

처럼 허둥대고, 그래서 오히려 일들이 뒤엉키지. 빨리, 더 빨리. 칼을 쥔 손이 바빠서 목덜미가 뜨거워졌어. 갑자기 도마가 앞으로 밀렸어. 손가락을 뻗 것. 식칼의 이가 나간 건 그 찰나야.

검지손가락을 들어올리자 붉은 핏방울 하나가 빠르게 피어나고 있었어. 둥글게, 더 둥글게. 손가락을 입속에 넣자 마음이 편안해졌어. 선홍 빛의 색깔과 함께, 이상하게도 그 들끓는 맛이 나를 진정시키는 것 같았어. (중략)

왜 나는 그때 놀라지 않았을까. 오히려 더욱 침착해졌어. 마치 서늘한 손이 내 이마를 짚어준 것 같았어. 문득 썰물처럼,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미끄러지듯 밀려나갔어. 식탁이, 당신이, 부엌의 모든 가구들이. 나와, 내가 앉은 의지만 무한한 공간 속에 남은 것 같았어.²¹⁾

밑줄 친 부분에서 ‘영혜’는 능동적인 행위자가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남편의 서두름’에, ‘식칼에 닿는 고기의 촉감’에, ‘도마의 밀림’에, ‘붉은 핏방울’에, 그리고 ‘서늘한 손’에 의해 ‘영혜’는 감응된다. 그 순간 ‘영혜’를 둘러싼 모든 것이 밀려나간다. 마치 화면이 거꾸로 돌아가듯, ‘영혜’는 홀로 남겨진다. 능동이 아닌 수동, 연접이 아닌 이접의 방향이다. 이로써 이 대목의 능동적 행위자는 ‘영혜’가 아니라 남편, 식칼, 식칼의 파편, 고기, 도마, ‘영혜’의 찢어진 신체에서 배출된 핏방울, 그리고 무엇인지 인식조차 할 수 없는 서늘한 손임이 분명해진다. 즉 인간, 비-인간(물질적) 행위자와의 접촉이 ‘영혜’로 하여금 능동적 행위자가 아니라 감수자가 되게 한다.²²⁾ 이처럼 「채식주의자」의 행위자-행위소 모델을 재구

21) 한강, 「채식주의자」, 『창작과비평』 124, 2004년 여름, 258-259쪽(밑줄은 인용자의 것임).

22) 여기에서는 논의의 흐름상 ‘영혜’를 ‘감수자’로 지칭했지만,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감수-행위자라 해야 할 것이다. ‘영혜’는 다른 가족들에게, 특히 여러 연구에서 언급한 것처럼, 언니인 ‘인혜’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형부에게도, 그리고 냉정한 서술자인 ‘나’에게도 분명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영혜는 감수-행위자이며, 소설 속에 등장하는 다른 존재들 역시 모조리 감수-행위자다. 감수-행위자(pati-agent) 개념에 대해서는 김홍중, 「가브리엘 타르드와 21세기 사회이론」, 『한국사회학』 56-1, 한국사회학회, 2022, 95-99쪽

성하기 위해서는 인간만큼 비-인간(물질) 행위자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영혜’의 변형 행위(→, 행위라기보다는 정동됨에 가깝지만)가 비-인간 행위자와의 접촉에 의해 촉발되기 때문이다.

텍스트를 이런 식으로 분석하게 되면, 『채식주의자』의 서사-기호 수준에서의 기본 대립항은 ‘영혜’와 다른 인물들(가족을 포함한)이 아니라 ‘영혜’와 ‘육식’이 된다. 그리고 이렇게 쓰는 순간 우리는 익숙한 서사 프로그램으로부터 벗어난다. 이 소설의 주체 자리에 영혜를 놓을 때, 육식이 가치 대상(육망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은 명백한데,²³⁾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혜’와의 관계에서 ‘육식’만이 대상의 자리에 놓일 수 있다(변형을 수반한다)는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육식에 가치를 부여하는 세계(인간계)에서는 모순 없는 참이다. 그러나 그러한 가치가 통용되는 세계로부터 밀려나간 ‘영혜’, 즉 비-인간에 의해 정동된 ‘영혜’에게 가치 대상이란 존재할 수 없다. ‘영혜’를 둘러싼 모든 것이 밀려나가고 ‘영혜’는 홀로 남는다. 채식주의자 3부작의 결말에서 확인할 수 있듯, 『채식주의자』의 세계에서 ‘영혜’가 추구하는 가치 대상은 끝내 밝혀지지 않으며, ‘영혜’ 자신도 무(죽음)로 돌아간다. 서사-기호 수준에서 독자가 읽을 수 있는 것은 ‘육식’으로부터 이접되는 ‘영혜’, ‘영혜’의 절망뿐이다.

논의를 정리해 보자. 『채식주의자』에 대한 오독은 식물과 동물, 채식과 육식, 여성과 남성, 자연과 문명 등의 가짜(비논리적이고 자의적인) 이항대립으로부터 유발된다. 그리고 이러한 오독은 작가 스스로도 예상했던 현상에 가깝다.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강은 한 대담에서 『채식주의자』에 대해 “아주 오해의 여지가 많은 작품”이며, 그로 인해 많은 독자들로부터 항의의 메일을 받았고, 그러한 오해와 항의가 “그렇게 썼기 때문에 제가 달게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더하여

참조.

23) ‘영혜’는 육식을 ‘원한다’가 아니라 육식을 ‘할 수 있다(한다)’에서 육식을 ‘할 수 없다’로 전환된 것이다. 즉 육식은 영혜의 ‘육망’의 대상, 명확한 가치 대상이 아니다.

『채식주의자』가 “가부장제에 대한 고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도 말했다.²⁴⁾ 물론 뉴크리티시즘 이론가들이 지적한바, 작가의 의도가 텍스트에 온전히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하고, 독자가 작가의 의도를 완벽하게 파악하는 일도 현실의 독서에서는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다. 특별한 조건이 있지 않는 한, 독자는 소설을 읽을 때 관습적인 서사 프로세스와 사고 회로를 적용하여 텍스트의 기호-서사를 읽을 뿐이다. 이점에서 연접으로의 이행과 인간화된 가치에 대한 이항대립적인 사고가 그러한 관습적인 서사 프로세스 및 사고 회로에 해당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바, 『채식주의자』는 그러한 관습에 역행한다. 일반적인 수준의 읽기 과정을 상기해 볼 때, 『채식주의자』를 읽는 경험의 도상에는 기존의 서사 읽기 관습을 철회해야 하는 지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겠다.²⁵⁾ 텍스트의 기호-서사를 읽어나가는 과정에서 독자는 손쉽게 취할 수 있는 읽기 관습에 따라 여러 가지 이항대립과 표준적인 서사 프로세스를 조희하여 의미를 파악하려 할 것이다.²⁶⁾ 그러나 『채식주의자』는 그러한 손쉬운 의미 파악 및 해석을 허용하지 않는다. 손쉬운

24) 한강·강수미·신형철, 「대담: 한강 소설의 미학적 층위- 『채식주의자』에서 『흰』까지」, 『문학동네』 88, 2016년 가을, 35-36쪽.

25) 박진이 폴 드 만의 『독서의 알레고리』를 경유하여 『채식주의자』에 대한 오독(『채식주의자』의 ‘인혜’가 ‘영혜’를 이해하려는 과정이 글쓰기와 독서의 과정을 알레고리적으로 상연한다는 관점)을 살폈던 작업도 이 문제와 관련이 있다(박진, 앞의 글, 124쪽). 한편 독자반응이론에서 스탠리 피쉬의 ‘감정적 시학’ 역시 독자와 텍스트 사이의 해소되지 않는 갈등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엘리자베드 프로인드, 신명아 역, 『독자로 돌아가기』, 인간사랑, 2005, 155-187쪽 참조.

26) 그런 의미에서 『채식주의자』의 가짜 대립항들은 작품에 대한 가능한 생각들을 유발하기 위한 미끼같은 역할을 한다. 앞서 인용한 대담에서 한강이 말한 『채식주의자』에 대한 반응들, 가령 “왜 이렇게 불편한 소설을 쓴 것이냐”, “이 여자가 피해자인 것 같지만 사실 주변 사람들을 심하게 괴롭혔다고, 특히 남편을.”, “여성이 너무 수동적으로 그려지지 않았는가”, “너무 모호하지 않느냐”(한강·강수미·신형철, 앞의 글, 36쪽)와 같은 너무나 상반된 항의들은 모두 이러한 대립항들에 대한 가능하고도 불가능한 사유의 표시인 셈이다.

의미 파악을 허용하지 않는 텍스트를 마주하면서 독자는 판단에 혼란과 망설임을 느끼게 되며, 때로는 자신의 경험이나 신념에 기반한 일방적인 해석으로 독서를 종료하고 싶은 욕망을 느끼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채식주의자」에 대한 독자들의 편향된 판단과 그로 인한 불만은 해석 불가능 사태에 대한 심리적 반응일 따름이다. 텍스트의 기호-서사에 대한 의미 파악과 해석에 지체가 발생한다는 것, 즉 텍스트의 기호적 계열체가 독자의 감각과 지각을 거쳐 기대나 희망, 의지, 정념 등의 견고한 의식 경험으로 순조롭게 등록되지 못한 채 독자의 전의식 수준에서 부유하게 된다는 뜻이다. 이 미결정 상태야말로 「채식주의자」가 독자들을 정동하는 방식이다. 독자는 텍스트에 대한 해석의 지체와 미결정 사태를 견디지 못해 독서를 중단하거나 불만을 표시할 수단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반응 자체는 기실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다. 보다 주목해야 할 사실은 「채식주의자」가 독자들의 해석적·윤리적 판단의 미결정 상태를 매우 효과적으로 유발한다는 점이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원인이 ‘영혜’의 독특한 위상이라는 점이다. ‘영혜’의 독특한 위상이란 물질적인 것을 포함한 비-인간 행위자에 의해 정동되는 감수자로서의 양태이고, 이러한 양태 때문에 「채식주의자」의 서사는 연접에서 이점으로의 이행으로 파악된다.²⁷⁾

27) 이 장에서는 주로 그레마스의 행위기호학을 중심으로 ‘영혜’의 양태를 살폈으나 그레마스의 기호학은 초기 연구 이후 정념의 기호학으로 확장된 바 있다. 정념 주체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정념의 기호학에는 생성과 변조, 신체, 감응, 정동 등 이른바 ‘물질로의 전회’와 함께 제기된 다양한 문제의식이 이미 폭넓게 포함되어 있다. 이 정념의 기호학은, 서사와 담화에, 그리고 나아가 독서의 주체에게로 확장된다(알기르다스 줄리앙 그레마스·자크 폰타뉴, 유기환·최용호·신정아 역, 『정념의 기호학』, 강, 2014, 29-34쪽 참조).

3. 정체와 이탤릭체: 타이포그래피의 물질성

앞서 「채식주의자」를 읽는 과정에 관습적인 독해 가설이 의심되거나 철회되어야 하는 지점이 있고, 그로 인해 텍스트에 대한 판단과 해석에 지체가 발생하며, 그것이 감수자라는 ‘영혜’의 독특한 위상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영혜는 여러 비-인간(물질) 행위자들과의 접촉에 의해 정동됨으로써 감수자로서의 위상을 갖게 된다. 이 비-인간 행위자들은 ‘영혜’와 접촉하여 인간과 비-인간 간의 행위자네트워크를 형성한다.²⁸⁾ 이처럼 「채식주의자」의 기호-서사를 인간-비인간 행위자네트워크로 이해할 때 ‘영혜’나 ‘영혜’의 행위(정동)는 인간화된 무엇, 즉 인간의 의식이나 무의식, 규범이나 표상, 특정 하비투스(가령 ‘채식주의자’ 같은)가 아니라 “비-사회적 끈”에 의해 규정될 수밖에 없다.²⁹⁾ “비-사회적 끈”으로 연결된 ‘영혜’에게 내부/외부, 인간/비인간, 자연/사회, 구조/행위 등의 이항대립이 의미가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자명한 것으로 여겨지던 ‘영혜’의 사회적 관계 및 정체성이 해체되면서 ‘영혜’의 존재는 점점 희미해진다. 그러나 비-인간 행위자들과의 관계 측면에서 보자면 이러한 존재의 희미함은 새로운 역량의 표시이기도 하다. 지금까지는 ‘영혜’를 중심으로 「채식주의자」를 분석하였지만, 관점을 바꾸어 소설 속에 희미하게 산포되어 있는 비-인간 행위자에 초점을 맞추면 ‘영혜’야말로 비-인간/물질적인 것이 행위자가 될 수 있음을 드러내는 계기적 존재임을 알게 된다. 비-인간 존재가 행위자로 인정되는 것

28)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에 대해서는 브뤼노 라투르 외, 홍성욱 외 편역, 『인간·사물·동맹』, 이음, 2010; 김환석, 「행위자-연결망 이론에서 보는 과학기술과 민주주의」, 『동향과 전망』 83,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11; 김홍중, 「21세기 사회이론의 필수통과지점: 브뤼노 라투르의 행위 이론」, 『사회와 이론』 43, 한국이론사회학회, 2022 참조.

29) 김홍중, 「21세기 사회이론의 필수통과지점: 브뤼노 라투르의 행위 이론」, 『사회와 이론』 43, 한국이론사회학회, 2022, 19-20쪽.

은(가시화되는 것은) ‘영혜’와의 네트워크를 통해서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희미했던, 실존하지 않는 듯했던 존재가 행위자로 인식될 가능성을 갖는다. ‘영혜’와 비-인간/물질적인 것들은 서로가 서로의 존재 가능성을 증명하는, ‘다르게 존재할 수 있음’의 계기가 된다.³⁰⁾

그런데 ‘영혜’의 양태 변화를 유발하는 비-인간 행위자 중에 아직 논의하지 않은 것이 있다. 그것은 텍스트 내에서 ‘영혜’가 비-육식 양태를 갖게 된 직접적인 원인으로 기술되는 ‘꿈’이다. 「채식주의자」에는 ③-2, ④, ⑪, ⑮ 등 총 네 번의 꿈이 서술되는데,³¹⁾ 그 중에 ‘영혜’의 변형 행위를 촉발하는 것은 ③-2이다. ③-2의 꿈에서 ‘영혜’가 본 것은 어두운 숲과 고깃덩어리가 걸린 헛간, 소풍 중인 가족들, 피 웅덩이에 비친 자신의 얼굴 등 파편화된 이미지들이다. 일반적으로 소설 속의 꿈은 인물의 억압된 욕망이나 사건의 감춰진 의미 등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지만, ‘영혜’의 꿈은 그러한 이미지의 비유적인 기호 작용을 포함하면서도(가령 그 이미지들이 영혜의 폭력에 대한 트라우마나 공범자로서의 죄의식을 드러낸다는 식의 해석) 그것을 초과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30) “만약 행위자들이 100%의 강도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라, 기울어진 존재의 경사도를 따라 점점 더 존재해가거나, 점점 덜 존재해가는 명제들이라면, 우리는 사회에 존재하는 행위자들에 대해 선형적이고 완벽한 지식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다. 행위자는 상관적 존재이며 미래성과 타자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1857년 이전에는 지구상에 발효균이 거의 분절되어 있지 않았던 (알려져 있거나 이용되거나 논의되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022년 현재에도 아직 충분히 분절되지 못한 미지의 행위자들이 어딘가에 나름의 미약한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그들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무엇을 수행하는지 알지 못한다. 우리가 늘 정해진 목록에 넣고 이미 고정된 형태로 주어진 것으로 생각하는 행위자들(자본가, 중산층, 노동자, 남성, 여성, 청년, 지식인, 의사, 농부, 운동가 등)이 사회를 구성하는 행위자 목록의 전부가 아니다.” (위의 논문, 36-37쪽)

31) 텍스트에서 ‘꿈’은 등 총 네 번 서술되는데, 사건 시간의 층위에서는 꿈이 훨씬 더 높은 빈도로 발생한다. ③-2 이후 영혜는 매일 악몽에 시달리기 때문이다. 네 번의 서술된 꿈 중 ⑮를 제외하고는 모두 ‘영혜’의 꿈이며, ‘나’의 꿈인 ⑮는 ‘영혜’의 자해 이후 ‘영혜’의 정동이 ‘나’에게 전이된 것으로 이해된다.

사실 지금까지의 논의는 어디까지나 「채식주의자」를 기호-서사 층위에서 분석한 결과이다. 그렇기에 꿈을 포함하여, 비-인간 존재에게 정동되고 정동하는 ‘영혜’의 신체는 어디까지나 기호의 의미 작용에 대한 독자의 인식일 뿐이다. 그런데 ③-2에서부터 시작되는 ‘영혜’의 ‘꿈’은 기호 작용을 통한 의미 생산(비유적인 이미지)에 일정 부분 관여하는 동시에 이미지 자체로서도 독자를 충격한다. 선행 연구에서도 ‘채식주의자’ 연작의 ‘이미지’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진 바 있는데, 이때 그 연구들이 주목했던 것은 비유적인 이미지(은유, 유사성)가 아니라 연상적인 이미지(환유, 인접성)의 통합체로의 투사였다.³²⁾ 주로 꿈을 통해 재현되는 「채식주의자」의 연상적 이미지는 서사라는 (가설적인) 통합체로 투사됨으로써 비유적 이미지와는 달리 기호의 의미 작용을 지연하고 서사(해석)의 순조로운 진행을 절단한다. 즉 꿈(연상적인 것)의 이미지가 말에 의해 질서를 부여받기 이전 상태 그대로 통합체(소설 자체=서술의 결과물) 속에 들어옴으로써, “통합체의 질서를 교란시키고, 통합체 자체를 연상적인 것(무질서 상태, 위계와 구조의 와해-인용자 주)으로 만든다.”³³⁾

그러나 「채식주의자」의 꿈 이미지는 서사 통합체의 의미 작용을 지연하거나 절단하는 데에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텍스트 표면의 수준에서도 독자를 충격한다. 「채식주의자」의 꿈 이미지는 주로 ‘영혜’의 발화에 의해 서술되는데, 2장에서도 확인한 것처럼 그 꿈 이미지는 모두 이탤릭체로 표기된다. 로만 알파벳 표기에서 이탤릭체는 대화나 인용, 고유명사, 주석 및 보충, 외래어 음차 등 매우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는

32) 김용남, 「한강 「채식주의자」 속 이미지 연구—폭력적 이미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기술』 24, 단국대 한국문화기술연구소, 2018; 박진, 앞의 글; 이소연, 앞의 글.

33) “연상적인 것(소쉬르의 개념: 야콥슨의 유사성과 일부 대응-인용자 주)의 통합체(소쉬르의 개념: 야콥슨의 인접성과 일부 대응-인용자 주)로의 투사란 연상적인 것이 통합체에 의해 질서를 부여받기 이전 상태로 통합체 속에 들어옴으로써, 통합체의 질서를 교란시키고 통합체 자체를 연상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김태환, 앞의 책, 119쪽)

서체이다. 즉 로마 알파벳의 이탤릭체는 분명한 기능을 갖는 표기 수단인 셈이다. 반면에 한글 표기에는 이탤릭체에 대응하는 서체가 없고, 그로 인해 영문을 국문으로 번역할 때에는 이탤릭체 기능을 대체하기 위해 여러 가지 문장 부호를 동원해야 한다.³⁴⁾ 한글 표기에서 이탤릭체의 기능에 대한 규범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채식주의자」의 경우에는 읽기 과정을 통해 이탤릭체의 기능을 유추할 수밖에 없다. 주지하듯 「채식주의자」의 이탤릭체는 일차적으로 ‘나’의 서술과 ‘영혜’의 내적 독백을 구분하는 기능을 한다.³⁵⁾ 만약 ‘영혜’의 독백이 이탤릭체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 독자는 이 소설의 ‘나’가 누구인지 쉽게 식별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채식주의자」의 이탤릭체가 언술 주체를 구분해주는 기능을 갖는다고 보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만약 언술 주체의 구분이 목적이라면 서체를 바꾸지 않고도 얼마든지 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소설들이 서체 변화 없이 서술자를 교체하며, 때로는 의도적으로 서술자 교체를 독자가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아무런 표지를 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주지하듯 이탤릭체는 서체 디자인, 즉 타이포그래피의 일종이다. 특히 한글 표기처럼 이탤릭체에 대한 분명한 코드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탤릭체로 표기된 문장은 시각적인 충격으로 경험될

34) 정영훈, 「강조 및 인용 표시를 위한 한글 글자체 디자인」, 『글자씨』 6-1. 한국타이포그래피학회, 2014, 55쪽.

35) 한강의 소설 중 이탤릭체가 처음으로 도입된 작품이 「채식주의자」이다. 그 이후 한강은 『바람이 분다, 가라』, 『희랍어 시간』, 『소년이 온다』를 비롯하여 수많은 소설에서 다양한 용례의 이탤릭체를 활용하게 된다. 한강의 이탤릭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한 실정인데, 현재로서는 조의연·조숙희의 「『소년이 온다』 이탤릭체의 담화적 특성」(『영어권문화연구』 9-3, 동국대 영어권문화연구소, 2016)이 한강 소설의 이탤릭체에 대한 유일한 본격적 논의라 생각된다. 이 논문은 주로 『소년이 온다』의 번역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한편 작가는 이탤릭체로 쓰인 부분을 “좀 더 안으로 들어가서 나오는 말. 정체로 쓸 수 없는 말.”이라 밝힌 바 있다(이혜경·한강·차미령, 「간절하게, 근원과 운명을 향하여」, 『문학동네』 74, 2013년 봄, 138쪽).

가능성이 높다. 서구의 아방가르드, 미래파 시인들이나 식민지 조선의 이상은 타이포그래피의 시각적·청각적 충격을 창작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도 했다.³⁶⁾ 가령 이상은 자신의 시에서 숫자의 순차적 배열이나 다양한 비-문자 기호의 활용을 통해 독자들의 충격과 향의를 유발한 바 있다. 언어예술인 문학에서 타이포그래피는 활자의 시각적·청각적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언어 기호의 의미 작용과는 독립적인 예술의 혁신적 효과를 창출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는 셈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서구의 아방가르드, 미래파 시인들이 타이포그래피를 활용해 언어예술의 한계를 넘어 활자 이미지의 직접적 환영을 구현했던 것과 달리, 「채식주의자」의 이탤릭체는 언어예술의 영역을 과격하게 파괴하거나 언어 기호와의 급격한 단절을 시도한 경우라 볼 수는 없다는 점이다. 「채식주의자」의 타이포그래피는 ‘나’와 ‘영혜’의 언술 단락을 각각 정체와 이탤릭체로 표기할 뿐, 활자 이미지의 직접적 환영을 창출하지는 않는다. 게다가 다른 서체로 표기하지 않아도 언술 주체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채식주의자」의 이탤릭체는 의사소통 기능 차원에서도 필수적이라 할 수 없다. 요컨대 「채식주의자」의 이탤릭체는 매우 미약한 수준의, 감소된 시각적 이미지면서서 확고한 기능도 갖지 못한 잉여적인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처럼 잉여적인 것이기에 「채식주의자」의 이탤릭체는 초현실주의 예술과는 달리 언어예술의 단일한 지평 위에서 활자와 기호, 물질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 감각적 이미지와 언어적 의미 작용을 절합할 수 있게 된다. 기호는 의미 작용의 역능이 감소된 채 흐릿한 이미지로 결정되며, 활자 역시 고유한 물성과 기능을 삭감당한 채 이미지에 가까운 무엇이 됨으로써 텍스트라는 단일한 평면 위의 한 점을 향해 수렴된다.

언어 텍스트인 「채식주의자」의 이탤릭체로 표기된 단락들은 언어 기

36) 김지윤, 「이상 시의 타이포그래피와 20세기 아방가르드: 인쇄술과 문화적 액티비즘의 영향에 관한 고찰」, 『구보학보』 28, 구보학회, 2021.

호의 의미 작용을 그대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기호의 상징체계에 의존한다. 이탤릭체로 표기되는 ‘영혜’의 발화(㉓-2, ㉓-1, ㉑, ㉒, ㉑, ㉒) 단락은 연상적인 이미지의 단속적인 제시를 통해 비유적 이미지와의 차이와 충돌을 가시화하지만, 서사 통합체로 투사된다는 점에서 여전히 기호 작용의 일종이다. 그렇지만 그 연상적 이미지의 감각(시각)적 표현물인 이탤릭체의 ‘기울어짐’은 기호 작용이 아니다. 기울어진 활자는 독자들의 신체(시각)와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물질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울어짐’이라는 활자의 시각적 물성은 활자가 실어 나르는 기호의 의미(지시 작용)와 기능(코드화)으로부터 상대적 자율성을 갖는다. 아울러 이탤릭체의 물성은 정체(正體)와의 시각적 대조를 통해 기호의 의미 작용과는 또 다른 독자들의 반응 경로를 생산한다. 기호의 의미 작용 차원에서 보자면 정체(正體)로 인쇄된 ‘나’의 서술 단락들에는 상징계의 질서(육식)로부터 이접되어가는 ‘영혜’에 대한 ‘나’의 냉정한 관찰과 보고가 주로 나타나는 반면, 이탤릭체로 인쇄된 ‘영혜’의 발화에는 이미 상징계의 질서로부터 이접된 ‘영혜’의 윤택된 심적 반응만이 비선형적이고 때로는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대조는 ‘나’의 관찰과 보고가 어떠한 이데올로기적 가정들에 의해 구성되는지, 그리고 ‘영혜’가 왜 사회적인 관계에서 이탈하여 비-인간(물질) 행위자들과의 네트워크에 접속하게 되는지 선명하게 부각시킨다.

그러나 정체(正體)와 이탤릭체로 인쇄된 서술 단락 간의 대조에 의한 의미 파악은 독서가 모두 끝난 뒤에야 종합적으로 판명되는 것이다. 반면에 정체와 이탤릭체의 시각적 물성에 의한 대조 효과는 독서가 진행 중인 도상에서, 독자들의 심적 반응으로 실시간 누적된다. 정해진 코드가 없고 그래서 보편적인 인쇄 활자라도 취급되지 않는, 낯설고 읽기도 어려운(읽기 싫어지는), 지면(紙面)의 오른쪽 하단을 향해 13도 정도 비스듬하게 경사진 채 쓰러질 듯 이어지는 활자들(이탤릭체)을 읽는 일은 보편적인 활자 형태라 익숙하고 읽기도 쉬우며, 지면의 상·하단과 수직

을 이룬 채 당당하고 균형 잡힌 형태로 서 있는, 그래서 이름도 정체(正體)인 활자들을 읽는 경험과 같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질적인 두 가지 활자들의 덩어리는 일정한 거리를 사이에 두고(네트) 서로를 페이지의 뒷면으로 밀어내면서, 자신들의 일을 한다(워크). 이렇게 구성된 지면을 읽는 일은, 물론 개인적인 경험에 불과하므로 함부로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매우 불편하고 때로는 불쾌한 경험이다. 이 불편함과 불쾌함은 단지 이탤릭체 때문만이 아니다. 이탤릭체의 기울어짐이 읽기에서의 ‘불편함’을 유발하는 것은 맞지만, 이탤릭체만으로 쓰인 글을 본다고 해도 「채식주의자」를 볼 때처럼 ‘불쾌’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불쾌함은 이탤릭체와 정체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하나의 지면에 나란히 인쇄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3장의 소제목을 보면 이러한 불쾌함이 조금은 실감날지도 모르겠다.

3장의 소제목에서, 이탤릭체로 표기된 “*이탤릭체*”는 정체로 표기된 쌍점(“:”)의 영역을 침범한다(“*이탤릭체*:”). 어쩌면 침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언제든지 침범할 것처럼, 쓰러질 듯 기울어져 있다. 이것이 불쾌함을 유발한다. 「채식주의자」 서사 내에서 ‘영혜’(의 비-육식으로의 양태 변화=기울어짐)가 주변 사람들과 사물들의 영역을 침범하고(침범할 것 같고) 그로 인해 갈등을 유발하는 것처럼,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서사 세계의 판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이탤릭체의 기울어짐은 정체의 영역을 침범하고(침범할 것 같고), 궁극적으로는 지면의 물성을 변화시킨다. 당연하게도, 정체가 없다면(똑같은 방식으로, ‘인간화된 세계=인간 외의 행위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 세계=사회’만이 존재한다고 가정하지 않았다면) 이탤릭체(영혜)의 기울어짐(비-육식)을 두고 침범이나 불쾌함(비정상)을 논할 일도 없었을 것이다. 동일한 논리로, 구조주의 서사기호학의 분석 도구인 이항대립적인 체계와 표준적인 서사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문학 혹은 소설에 대한 ‘다른 읽기’를 상상하는 일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식의 논리가 기존의 서사 분석 도구의 효용을 승인한다는 뜻은 아니다. 문학(소설)에 대한 새로운 독법(생태적인 독법)을 찾으려는 본고의 아이디어가 이항대립적 체계와 표준적인 서사 프로그램에 빚지고 있다는 점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것 자체가 문학을 새롭게 사유하는 일의 실천 방법은 아니기 때문이다. 「채식주의자」라는 작품에 한정하여 말하자면, 보다 중요한 것은 영혜의 독특한 위상이 만들어내는 이중적인 네트워크와 그러한 이중 네트워크를 물질적인 수준에서 극대화하는 타이포그래피의 절합 양상을 추적하고 묘사하고 번역하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채식주의자」는 확실히 문제적인 텍스트임에 틀림없다. 완전한 문학 독법의 변환을 생성하지는 않지만(작품이 그런 일을 떠맡을 이유도 없다), 그 가능성을 시험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것을 읽는(보는) 독자 역시 그 지면의 물성과 그 지면에 인쇄된 활자들이 실어 나르는 의미작용의 연합(네트워크)에 영향을 받을 것인바, 단일한 활자로 인쇄된 지면, 특정한 문학(소설) 독법, 순수하게 인간화된 세계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안정감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것, 「채식주의자」가 독자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발생시키는 정동적 효과는 그런 것이다.

4. 결론: 물질과 인간, 꿈과 말의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 예상대로 「채식주의자」는 선량한 채식주의자 ‘영혜’가 야만적인 육식주의자 가족들의 폭력에 저항하여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자 분투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다. 만약 그런 이야기였다면, 생태 위기를 경고하고 환경 보호를 호소하는 캠페인에 동원될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까지 확인한바, 「채식주의자」는 그러한 물건이 되지 못했다. 조금 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보도에 따르자면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이 알려진 2024년 10월 10일 이후 한강의 책이 전국 서점에서 품절되었고, 일주일도 안 되어서 대략 백만 부가 팔렸다고 한다.³⁷⁾ 그 책들을 생산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나무들이 희생되었을지는 계산을 해보아야 하겠지만, 한강 소설의 기록적인 판매고가 생태 위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 조금 엉뚱한 얘기가 되었지만, 하고자 하는 말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문학 혹은 글쓰기가 한 권의 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는 자본의 이해관계를 포함한 다양한 행위자들이 개입되어 있고, 문학 혹은 글쓰기 자체로는 그러한 복잡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³⁸⁾

그러니 문학이 생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법은 글쓰기와 독서를 포함한 문학적 경험을 새롭게 구성하는 일이다. 그 결과가 본론에서 분석한 내용들이다. 「채식주의자」라는 소설을 읽어가면서(때로는 오독하면서), 우리는 텍스트 내부와 외부가 복잡하게 네트워크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서사를 해석하기 위해 흔하게 동원되는 도구들이 「채식주의자」를 분석하는 데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했고, 그 결과로 텍스트의 의미 작용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영혜’의 독특한 위상을 고려하여 이 소설을 읽을 때, 멀고 가까움, 미시-거시, 내부와 외부 등의 구분은 무력화된다. ‘영혜’와 ‘나’는 물리적으로 가깝지만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 ‘영혜’의 가족도 마찬가지다. ‘영혜’는 마치 지금/여기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텅 빈 눈으로 주변 사람들을 응시한다. 물리적으로는 가깝지만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이 보기에 ‘영혜’는 외롭고 불쌍하고 비참하며, 이기적이고 비합리적이며 인

37) 「한강 작품, 누적 판매 100만부 돌파」, 『서울신문』, 2024.10.16.

38) 한 가지 에피소드를 덧붙이자면, 한강의 작품 중 온라인으로 원문 서비스가 되는 문예지 판본이 여럿 있었다. 「채식주의자」 역시 그러한 작품 중 하나였다. 그런데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그 중 몇몇 판본은 어느 순간 열람이 중지되었다가 지금은 아예 검색도 되지 않는다. 복잡한 사정이 있겠으나 출판사 입장에서 온라인 원문으로 작품에 접근하는 방식은 그리 권장할 만한 일이 아니리라 생각된다.

간담지 못하다. ‘영혜’는 시시때때로 과거의 기억이나 꿈, 정체를 알 수 없는 이미지 사이를 떠돈다.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그리고 관습적으로도 인간과 연결되어 있다 할 수 없는 것들이 ‘영혜’와 더 강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식칼, 도마,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죽은 개, 이미 생명을 잃고 식용으로 손질된 날고기들, 꿈들, 그리고 작품의 결말부에서 이 모든 비-인간 행위자들의 이미지를 응축하는 죽은 동박새까지,³⁹⁾ ‘영혜’는 이런 것들과 연결되어 있다. 「채식주의자」라는 텍스트는 그런 비-인간 행위자에 연결되어 있는 영혜의 경험을 ‘번역’하여 독자에게 들려(보여)준다.⁴⁰⁾ 이 중 네트워크로서 영혜의 경험이 어떠한지 아직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한다. 다만 텍스트의 번역을 통해 짐작할 뿐이고, 이 소설을 읽는 동안 독자 역시 이러한 번역 작업에 동참하게 될 뿐이다. 이 자원들을 더욱 진작시키고 동원하는 것이 문학 생태적으로 사유하는 일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충분한가. 그럴지도 모른다. 이 정도에 만족하는 것이 문학의 영토를 안전하게 보존하는 방법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문학

39) 간혹 작품 결말부에 나타나는 동박새의 이미지가 ‘영혜’의 포식자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낸다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본고는 그런 식의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해석은 텍스트에서 확인되는 정황 증거들(가령 영혜의 입술에 묻어 있는 피, 동박새의 몸에 남아 있는 이빨 자국)을 해석의 근거로 제시하지만, 그것은 글자 그대로 정황 증거일 뿐이다. 무엇보다 그 진술들은 이미 ‘영혜’로부터 이접되어 있는 ‘나’의 것이라는 점에서 신빙성을 갖지 못한다. ‘영혜’의 진술이 비합리적이라고 느끼는 이유와 동일하게 그러하다. ‘영혜’의 진술을 믿지 못한다면, ‘나’의 진술 역시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요컨대 ‘나’와 ‘영혜’를 모두 상대화할 수 있는 시선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시선은 메타적인 수준이 아니라 동등하게 내부적인 수준에서 설명되어야 한다. 그래야 공정하다. 「채식주의자」의 비-인간 행위자들이 바로 그러한 시선의 위치다.

40)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에서 ‘번역(translation)’은 사회나 질서, 권력의 분배를 묘사하기 위한 핵심적인 전략이다. “번역은 변환(transformation)과 동가(equivalence)의 가능성, 즉 하나(예를 들어 행위자)가 다른 하나(예를 들어 네트워크)를 대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는 동사이다.”(브루노 라투르 외, 홍성욱 편역, 『인간·사물·동맹』, 이음, 2010, 49쪽)

의 영토가 물질적인 것의 수준을 초월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물질적인 수준에서 생태적 파국이 임박했다는 과학자들의 경고가 사실이라면, 안전한 문학의 영토란 존재할 수 없다. 3장에서는 텍스트의 의미 작용에 대한 새로운 독법보다 조금 더 실재적인 수준으로 문학 현상을 분석하는 일이 가능함을, 약간의 비약을 무릅쓰고라도, 확인해보려 했다. 이를 위해 타이포그래피의 운용과 그 효과를 분석하고 묘사했다. 텍스트의 짜임을 통해 형성되는 기호의 의미 작용이 책이라는 물질적인 것의 표면과 맞닿는 지점에서 활자의 시각적 물성이 또 하나의 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보이려 했다. 꼭 타이포그래피가 아니라 하더라도 좀 더 물질적인 것에 가까운 자원들, 인간의 신체와 맞닿는 지점들이 문학 텍스트의 의미 작용과 강하게 연결될 수 있음을 암시하려는 의도였다. 그 가능성의 최대치 혹은 종결부를 상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문학이라는 고도로 발달된 행위자들의 네트워크에는 우리의 문학 경험을 보다 생태적인 방식으로 확장해줄 수 있는 자원들이, 아마도 존재할 것이다. 그 자원들은 기존의 문학 경험과는 연결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채식주의자」의 작가가 ‘영혜’의 말을 이탤릭체로 표기했던 것처럼 문학 연구 역시 그 자원들의 연결망을 발굴하고 번역하는 작업에 관해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에 따르면, 물질(자연)과 인간은 서로를 되비추면서, 무언가를 무대 뒷면으로 몰아내면서 스스로를 전경화하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다. 서로가 서로를 완벽히 통제하지 않으면서 거리를 두고 가느다랗게 연결된 상태, 안과 밖이 구분되지 않는 하이브리드로서 인간과 물질은 연결된다. 인간이 비-인간(물질) 행위자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세계 내의 한 점이 아니라(우리의 행위 역시 개별적인 의도와 결과가 아니라) 세계 전체의 수준과 접속되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일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질학적 시대를 인류세로 정의해도 된다면, 이미 우리는 행성적 존재이고 문학 역시

그러한 수준에서 사고되어야 한다. 요컨대 우리의 문학적 경험을 생태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언어 기호와 물질적인 것(감소된 이미지)의 연결망을 사유하기 위한 새로운 시좌를 찾되, 그 시좌의 좌표를 관찰자의 메타적 수준이 아니라 (언어) 텍스트 혹은 문학 현상이라는 단일한 평면 위에 자리매김하는 작업이 요청된다 하겠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한강, 「채식주의자」, 『창작과비평』 124, 2004년 여름.

2. 단행본

김성도, 『구조에서 감성으로-그레마스의 기호학 및 일반 의미론의 연구』,
고려대학교출판부, 2002.

김태환, 『문학의 질서』, 문학과지성사, 2007.

나병철, 『정동정치와 언택트 문학』, 문예출판사, 2023.

멜리사 그레그·그레고리 시그워스 편, 최성희·김지영·박혜정 역, 『정
동 이론』, 갈무리, 2015.

브루노 라투르 외, 홍성욱 외 편역, 『인간·사물·동맹』, 이음, 2010.

브라이언 마수미, 조성훈 역, 『정동정치』, 갈무리, 2018.

알기르다스 줄리앙 그레마스, 김성도 역, 『의미에 관하여』, 인간사랑,
1997.

알기르다스 줄리앙 그레마스·자크 폰타뉴, 유기환·최용호·신정아 역,
『정념의 기호학』, 강, 2014.

엘리자베드 프로인드, 신명아 역, 『독자로 돌아가기』, 인간사랑, 2005.

제라르 즈네트, 권택영 역, 『서사담론』, 교보문고, 1992.

폴 프라이, 정영목 역, 『문학 이론』, 문학동네, 2019.

3. 논문 및 기타

김용남, 「한강 「채식주의자」 속 이미지 연구—폭력적 이미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기술』 24, 단국대 한국문화기술연구소, 2018, 7-31쪽.

김재경, 「소설에 나타난 음식과 권력의 문화기호학: 김이태 「식성」과 한

- 강 『채식주의자』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22, 한국여성문학학회, 2009, 251-281쪽.
- 김지윤, 「이상 시의 타이포그래피와 20세기 아방가르드: 인쇄술과 문화적 액티비즘의 영향에 관한 고찰」, 『구보학보』 28, 구보학회, 2021, 153-196쪽.
- 김홍중, 「가브리엘 타르드와 21세기 사회이론」, 『한국사회학』 56-1, 한국사회학회, 2022, 77-114쪽.
- _____, 「21세기 사회이론의 필수통과지점: 브뤼노 라투르의 행위 이론」, 『사회와 이론』 43, 한국이론사회학회, 2022, 7-56쪽.
- 김환석, 「행위자-연결망 이론에서 보는 과학기술과 민주주의」, 『동향과 전망』 83,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11, 11-46쪽.
- 박수진, 「한강의 『채식주의자』에 나타난 포스트휴먼적 변신」, 『비교한국학』 27-1, 국제비교한국학회, 2019, 119-148쪽.
- 박진, 「한강 연작소설 『채식주의자』에 나타난 글쓰기의 자의식과 독서의 알레고리」, 『현대문학이론연구』 19, 현대문학이론학회, 2019, 105-128쪽.
- 송유진, 『정동적 읽기를 통한 한강 소설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3.
- 신수정, 「한강 소설에 나타나는 ‘채식’의 의미: 『채식주의자』를 중심으로」, 『문학과 환경』 9-2, 문학과 환경학회, 2010, 193-211쪽.
- 심진경, 「변신하는 주체와 심리적 현실로서의 환상」, 『세계문학비교연구』 65, 세계문학비교학회, 2018, 61-76쪽.
- 오정란, 「한강 『채식주의자』의 언어기호론적 해석」, 『인문언어』 18, 국제언어인문학회, 2016, 179-216쪽.
- 우미영, 「주체화의 역설과 우울증적 주체: 한강의 소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30, 한국여성문학학회, 2013, 451-481쪽.
- 우찬재, 「섭생의 정치경제와 생태 윤리」, 『문학과 환경』 9-1, 문학과 환

- 경학회, 2010, 53-72쪽.
- 이소연, 「한강 소설 속의 몸 이미지와 정동(affect)의 서사담론」, 『한국문예비평연구』 75,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22, 91-117쪽.
- 이찬규 · 이은지, 「한강 작품 속에 나타난 페미니즘 연구: 『채식주의자』를 중심으로」, 『인문과학』 46,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0, 43-67쪽.
- 이혜경 · 한강 · 차미령, 「간절하게, 근원과 운명을 향하여」, 『문학동네』 74, 2013년 봄.
- 장수익, 「감각과 분열증-한강 소설 연구 1」, 『한국현대문학연구』 58, 한국현대문학회, 2019, 393-431쪽.
- 정영훈, 「강조 및 인용 표시를 위한 한글 글자체 디자인」, 『글자씨』 6-1, 한국타이포그래피학회, 2014, 54-68쪽.
- 조윤정, 「한강의 『채식주의자』에 나타나는 인간의 섭생과 트라우마」, 『인문과학』 64,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7, 5-39쪽.
- 조의연 · 조숙희, 「『소년이 온다』 이탤릭체의 담화적 특성」, 『영어권문화연구』 9-3, 동국대학교 영어권문화연구소, 2016, 257-274쪽.
- 한강 · 강수미 · 신형철, 「대담: 한강 소설의 미학적 층위- 『채식주의자』에서 『흰』까지」, 『문학동네』 88, 2016년 가을.
- 한귀은, 「외상의 (탈)역전이 서사-한강의 『채식주의자』 연작에 관하여」, 『배달말』 43, 배달말학회, 2008, 289-317쪽.
- 한효빈, 「한강 소설에 나타난 여성 인물의 페이션시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3.
- 「한강 작품, 누적 판매 100만부 돌파」, 『서울신문』, 2024.10.16.

<Abstract>

A Study on How to Think about Literature
Ecologically
- The Network of Words and Dreams in “The Vegetarian”

Kim, Myong-hoon*

At a time when global catastrophe due to the ecological crisis is predicted, culture and literature, a type of culture, have also become unable to claim their own territory without considering materiality. Accordingly, in this paper, we considered ways to think about literature ecologically through the process of reading Han Kang’s short story “The Vegetarian”. As the author himself confessed, “The Vegetarian” is a work that can be easily misunderstood. Readers complained that they could not understand why ‘Young-hye’, the main character of the work, became a vegetarian and why she made people around her uncomfortable under the pretext of protecting her beliefs. This paper reads “The Vegetarian” using the analytical tools of structuralist semiotics, which serve as the source of such binary judgments, under the assumption that readers’ and researchers’ conflicting impressions, interpretations, and complaints about “The Vegetarian” originate from the binary judgments about the characters.

In this process, it was confirmed that “The Vegetarian” completely betrays the binary oppositional meaning production system and narrative program used in structuralist semiotics. The conflict between the main characters that appears on the surface of the

*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narrative could not be the final instance of narrative analysis and interpretation because it had little to do with changes in the subject's mode. Instead, it was found that non-human actors caused a change in the mode of the subject, that is, a transition from meat-eating to non-meat-eating. 'Young-hye', networked with non-human actors, reveals her unique status as a reviewer by being separated from the humanized world.

Since Young-hye's status as a patient who responds to non-human/material things is the main cause of misreading of "The Vegetarian", this paper reexamines the reading process of "The Vegetarian" focusing on non-human/material things. Through this, I once again drew attention to the fact that most of Young-hye's speech paragraphs consist of dreams or intermittent images, and that these paragraphs are especially written in italics. Young-hye's utterance, written in italics, conveys the meaning of the imprisoned mental reaction of the patient connected to a non-human actors. At the same time, the contrast between the visual materiality of regular font and italics destroys readers' faith and sense of stability in the binary oppositional order. In short, "The Vegetarian" can be said to be a powerful affective dispositif that shakes our generalized narrative reading patterns and literary experiences from their foundations.

Key Words: Han Kang, The Vegetarian, ecologism, narrative semiotics, Actor-network Theory, patient, typography, italics

■ 논문접수 : 2025년 02월 28일

■ 심사완료 : 2025년 04월 20일

■ 게재확정 : 2025년 04월 20일